군산장례(전문)예식장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SHIDAO
INTERNATIONAL FERRY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 (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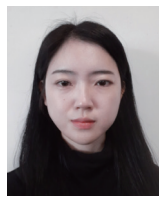
MAGAZINE GUNSAN SAEMANGEUM WRITING STAFF

매거진군산 새만금 편집위원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김혜진
편집부장
dhik0324@hanmail.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신재순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가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Vol.167 | 2025.03

magazine gunsan

회 장 박승일 newgunsanews@naver.com
발 행 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부 사 장 강권모 sky6113483@hanmail.net
편 집 부 장 김혜진 dhik0324@hanmail.net
취 재 부 장 최승호 gsport11@naver.com
편 집 위 원 강해인 godls468@naver.com
편 집 위 원 박세원 hamp38@hanmail.net
편 집 위 원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편 집 위 원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 집 위 원 이소암 lsa6246@hanmail.net
편 집 위 원 이영미 ycm1022@hanmail.net
편 집 위 원 조경신 vip2300@daum.net
편 집 위 원 최영두 cydnovl@naver.com
편 집 위 원 한상오 hansango24@gmail.com
편 집 위 원 한대산 jbekt@naver.com
칼럼니스트 배수정 jlmjlm710@naver.com
칼럼니스트 신재순 speedal@hanmail.net
칼럼니스트 공종구 kong@kunsan.ac.kr
칼럼니스트 김철호 www.crabland.com
자 문 위 원 이진우 jay0810@hanmail.net

좋은일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랭킹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군장대학교

체육회, 대의원 '줄세우기' 시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온 나라가 윤석렬 탄핵의 인용, 기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거나, 기각이 된다면 그 이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예측하자면 정치권은 내년 6월의 지방 선거를 국면 전환의 기점으로 삼으려고 할 게 뻔하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혹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직접 선거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간접 선거의 경우는 어떨까.

내가 표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단체나 집단의 대표로 선출된 이른바 '대의원' 등으로 불리는 이들이 행사하는 선거를 말한다.

혹시 시대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한 간접 선거의 부정적 시각 중 하나이다.

최근 군산시체육회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 또한 그런 류에 다름아니다. 이미 선거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몇몇 종목 단체에 '줄세우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해당 종목들은 "체육회가 선거에 관여하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체육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르쇠' 하고 있다.

지난 2년여 전, 체육회장 선거에서 전강훈씨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전씨는 체육계는 물론 지역에서도 생소한 인물이었다.

그 당시 체육계에서는 "상대(윤인식)가 당선될 게 뻔하니 기탁금이라도 찾게 도와달라"라고 했다는 소리도 들렸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변화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본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들리더니 지난 2월 대의원총회에서 런닝메이트 격이었던 사무국장 해임안이 통과되었다. 임원이자 근로자 신분이라면서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체육종목단체별로 선거가 이어져 왔다.

종목 단체의 선거를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건 체육회 고유업무라고 본다.

그런데 몇 몇 종목 단체에서 "회장이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민원 제보가 이어졌다.

체육회는 올 1월말까지 선거를 치르지 못한 몇몇 종목에 대하여 자체 선거운영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르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6개월이 경과 한 후에 몇 몇 종목을 사고 단체로 지정하고 정회원에서 강등시키는 등의 방안도 만지작거리는 걸로 파악된다.

설마 반대파를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대의원 표를 선점해 두려는 작업(?) 아닌지 고개가 갸웃해진다.

내년 말이 체육회장 선거이다.

체육인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억지로 대의원 표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반항은 커질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안된다.

'작접 선거'이든 '간접 선거'이든 한 표의 신성한 가치를 체육회장이 깨닫기 바란다.

글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절대, 군산·새만금신항은 뺏길 수 없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글 I 채명룡
ml7614@naver.com

자유 분방(?)하지만 분수를 지키는 정치인.
생활 정치를 표방하면서 시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 쭈~욱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왔다.
5선 시의원이 되기까지 조용한 리더십을 보여왔고, 동네 시의원의 역할도 했지만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마다 원칙과 지조를 지켰던 그.
살짝 자발맞지만 진정성이 가장 큰 무기인 김우민 시의장을 표현하는 말이다.
한 길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왔던 생활 정치의 달인, 소리없이 '조곤 조곤' 하던 그가 바짝 열받았다.
지난 군산새만금신항 사수 범군산시민 결의대회와 군산시청 광장의 단식 농성장에서 만난 그의 얼굴은 단호했고, 결기에 찼다.
오늘의 '신항 파동'을 겪으면서 군산 정치의 중심을 시의회로 돌려 놓는 계기를 마련한 그의 정치력은 두고 두고 회자될 것이다.

의 장

현장에 답이 있다

‘겸손의 정치’, ‘포용의 정치’

군산시의회 안에 새만금특위를 만들고, 군산의 정치의 중심을 시의회로 돌려놓은 기획과 역량은 평가받을 일이다.
‘십인 십색’의 시의회 안에서 특위를 만들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여 온 데에는 의원들의 생각을 한데 한 데 묶는 그의 경청의 자세가 빛을 발했다.
특히 김제와 범 전주권의 군산새만금신항 운영 주체 흔들기에 맞서 한 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 의장과 시의원들의 열정은 압권이다.
군산시민들의 염원이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있듯이 군산항을 지켜내려는 시의원들의 의지와 행동은 지역주민들의 가슴 속에 오래 간직될 것이다.
‘겸손의 정치’로 내리 5선에 올랐고, 지난 해 6월 ‘포용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제9대 군산시의회 의장에 무투표로 당선된 김우민 시의장.
군산새만금신항 흔들기에 맞서 ‘단식’이라는 카드를 꺼낸 강임준 시장이 지병으로 병원으로 향하자 시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삭발 단식이 문제가 아니지요!! 0,00001%라도 김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온몸을 다해 차단해야죠!!”
이제 그는 ‘겸손’과 ‘포용’을 잠시 내려 놓기로 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절대 뺏길 수 없다!!”라고 목청껏 소리 지르는 김 의장의 결기가 군산 정신을 깨우고 있다.

삭발 투쟁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궐기대회

새만금특위 3월 17일 기자회견

서명운동(이연화, 김영일 의원)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궐기대회(사진=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김우민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송미숙 시의원

단식(김경식 의원)

단식(김영란, 윤세자 의원)

단식(김영일, 우종삼 의원)

단식(김우민 의장, 송미숙 의원)

신체의 일부를 내놓는 '삭발'
곡기를 끊고 생명을 담보하는 '단식'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염원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
시민 궐기대회가 열린 아스팔트 바닥은 차가웠으나 항만의 도시 군산의 '짠물', 사나이들의 결기는 점점 뜨거워져 갔다.
겨울 바람 앞에서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의원, 우종삼 의원, 이래범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장, 이건주 관리도어촌계장, 이희풍 군산시이통장협의회장 등 총 7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이란 건 신체의 일부를 내놓고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삭발 의식은 신성하며 존중받는다.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며 강임준 시장이 단식 농성 일주일만에 지병으로 병원으로 실려간 3월 2일부터는 시의원들의 3일간씩 릴레이 단식이 이어졌다.
삭발에 더해 '단식'은 절대 절명의 표현이다. '곡기를 끊고 내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삭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집행부를 견재하지만 돕는 시의원들의 의기가 투합되었다. 강 시장이 병원으로 실려가자 그 자리를 시의원들이 이어받았다.
첫 날인 2일부터 새만금특위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 4일부터는 김우민 의장과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 6일부터는 김영란 의원, 윤세자 의원(국민의 힘), 8일부터 서은식의원, 10일부터 양세용 의원, 12일부터 박광일 의원, 14일 최창호 의원, 16일 김경식 의원이 단식을 이어갔다.
보름 동안 전체 23명의 시의원 중에서 11명이 참석한 릴레이 단식은 이성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돌입하기 위해 일단 17일로 마무리했다.
삭발과 단식이 이어지는 동안 진행된 범시민 가두 서명 운동에는 11만3천여명이 동참하여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의 간절함을 담아 냈다.

서명운동(참여)

군산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궐기대회(사진=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단식(박광일 의원)

단식(서은식 의원)

단식(양세용 의원)

착한 임대료 운동

화재 현장을 주민, 봉사자와 돕기

김우민 의장은 “이번 의회의 단식 농성은 전북특자도 불통 행정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강력한 경고”라고 했다.
또한 “전북도가 자문위원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두 항만의 ‘원포트’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민아~~ ’ 생활 정치, ‘군산정신 살리기’로 승화하라

살짝 자발맞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을 정도로 정감있게 다가서는 생활 정치인 김우민. 들어주고 말을 아끼지만 늘 유쾌한 그의 화술은 압권이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게 그의 케릭터이다. 그래서 그를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가 미룡동, 나운3동(지금의 아 선거구)에 출마했을 때 그의 앳된 외모만을 보아 온 분들에게 ‘무슨 시의원이냐’라거나, ‘어린○이 겁도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우민아~~하고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갑니다.”
그의 선거 케치프레이즈는 생기발랄했다. ‘가볍다’는 느낌도 들었으나, 주부들에게 어필하는 데에는 ‘직빵’이었다.
그 때도 동안이었고 지금도 동안이나, 첫 출마할 때 이미 서른 중반을 넘어섰던 그였다.
“우민이가 출마한다고?” 나름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소문은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 나갔다.
나서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빛내던 조연 역할에 그쳤기 때문일까. 허공에 잡히는 소리만 듣자면 안될거라는 게 대세였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오늘까지 그는 ‘겸손의 정치’로 시의원 5선을 이뤄냈으며, ‘포용의 정치’로 군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올랐다. 앞 길 또한 순풍이 예고된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해초 사거리에 ‘옐로우카펫’을 만들었고, 용문초 사거리에는 주민들과 학부형들의 참여로 단돈 30만원에 또 하나의 옐로우카펫을 만들었듯이 그는 생각하면 바람처럼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이제는 이웃 사촌같은 케릭터의 그를 작은 지역구에서 그만 놓아주면 어떨까.
군산을 위해 ‘은근과 끈기’의 정치로 ‘군산답게’, ‘군산정신’으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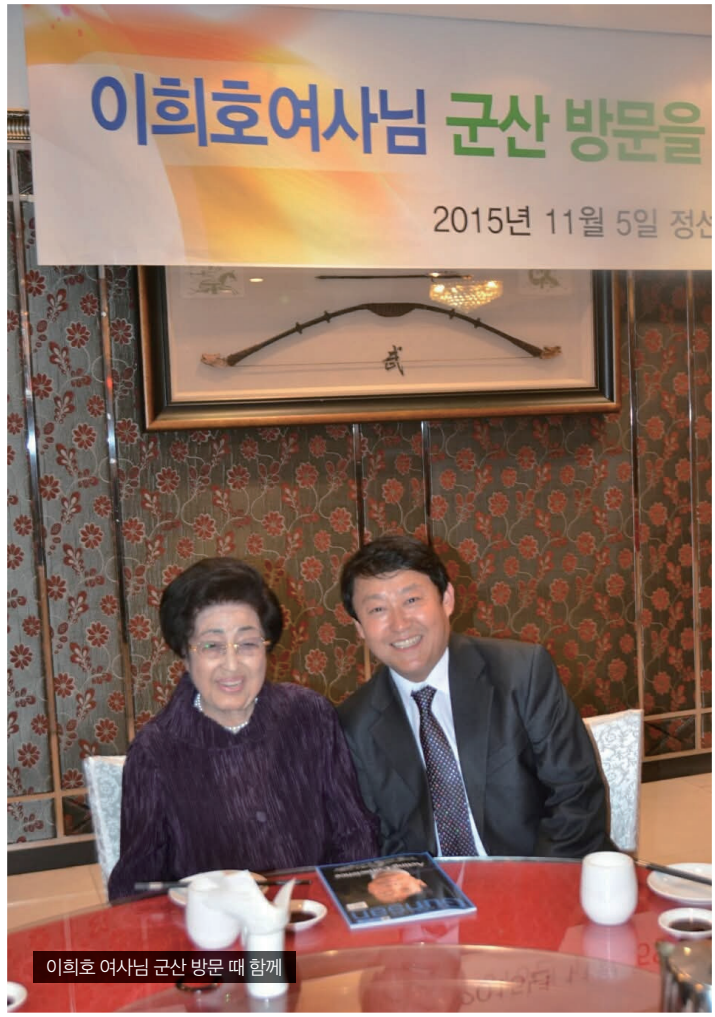
민원 현장에서 작업

‘경청’하자 세상이 사뿐사뿐 움직였다

부르기 쉬운 ‘우민이’는 군산 정치권의 독특한 케릭터로 자리 잡았다.
청년 시절부터 군산 정치권의 한 구석을 지키고는 있었으며, 궂은 일은 그의 몫이었다. 풀뿌리민주주의 초대 김길준 시장의 정무직 비서관을 했던 그였다.
그 이후로도 청년 당원으로써 활동을 계속했다. ‘조용히’, ‘소리없이’, ‘언제나’ 그는 자리를 지켰으나 정치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민이’는 착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냥 얻어진 이미지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 주변 의견을 ‘경청’하려고 했으며,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과 자신이 ‘동류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나갔다.
경청하면서 들어주자 세상이 그를 따라 사뿐사뿐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옆에 두기 시작했다.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앞서니 ‘우민이, 우민이, 우리 우민이’ 소리를 들을 수 밖에.
그런 그가 5선 시의원이라니, 참 세월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사나운 파도를 건너 가야만 한다.
“오늘의 군산새만금신항이 군산항 원포트항 지정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군산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절박감 때문이일까 요즘 그는 부쩍 말수가 적어졌다.
군산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가 두 어께에 얹혀져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이 또한 맞아야할 바람이니 피할 이유가 없다.
“군산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는 나서야지요. 제가 부족하겠지만 맨몸으로라도 바람 앞에 서고, 험한 파도에 맞서려고요. 5선을 시켜준 주민들에게 창피하지 않게 할 겁니다.”

용문초 사거리에 주민들과 함께 옐로우카펫 만들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이희호 여사님 군산 방문 때 함께

‘잘 싸워줘서 고맙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김우민이라는 이름 뒤를 20여년 동안 따라다녔던 ‘착한 청년’의 이미지는 잠깐 접어두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외유내강’, 시의장 김우민을 다시 믿어 보자.
군산시가 가슴을 활짝 펴는 일, 시민들이 자존심을 되찾는 일, 시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줄줄이 눈 앞에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부속항만으로 자리잡도록, ‘우민이, 우민이’를 넘어 ‘잘 싸워줘서 고맙다’라는 응원의 소리를 보낼 때까지.

군산시의회

군산시 시청로 17
https://council.gunsan.go.kr/
063-450-5811 / Fax.063-452-8155
유튜브 채널 주소
https://www.youtube.com/@gunsancouncil

갤러리 홀

새금강문화협동조합 출범

“군산사랑, 문화사랑 로컬 비즈니스 - 문화콘텐츠 창출”

글 I 최승호
gsport11@naver.com

문화와 군산 사랑!

을사년 1월, 어김없는 동장군의 한파와 어두운 과거사에 깊이 박제되었을 ‘비상계엄’의 망령이 나라를 짓누르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희희호호 아트센터’를 방문한 날은 하늘이 푸르고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가득차서 오늘은 대단히 기분 좋은 소식을 만나지 않을까? 자연스레 기대감이 컸다.

‘새금강문화협동조합(새금강)’이 드디어 발대식을 갖고 힘찬 걸음을 시작했다. 반가웠다. 새금강은 발대식과 함께 ‘제1회 SGG전시회’를 개최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널찍한 공간에 다가가는 시선이 바쁘고 흐뭇하게 움직였다.

군산시 미성동에서 아들(이온유)과 함께 체험장은 찾은 아버지(이동권)는 “갤러리가 오픈했을 때부터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전시가 뜸해서인지 오늘 행사가 더 반갑다. 아이도 재미있게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고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희희호호아트센터 대표이자 새금강의 첫 수장을 맡은 이은지 대표를 먼저 만났다. 이 대표는 “군산의 젖줄이자 역사와 문화의 생명수가 흐르는 금강을 양분 삼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자 ‘새금강문화협동조합’을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아트센터를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어요. 이후 지역의 플리마켓에 참여하며 (작가, 판매자, 자영업자로) 서로 공감한 부분이 많았어요. 자연스레 정보와 상황을 나누고 공유하며 여기까지 왔네요. 쉬운 건 없었어요.”

“군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작가 일곱 분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고 오랫동안 주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문화상품 개발”이 목표라고 밝힌다.

이 대표와 작가들의 생각과 실천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만연된 관성과 구태함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노력과 전문적인 작품 개발로 이어져 군산의 공예와 문화의 브랜드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옹골찬 다짐인 것 같아서 울림이 강했다.

발대식 단체사진

따로 또 같이, 일곱 별들의 조합

이은지 대표는 아트디자인, 문화예술교육사,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한때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경력의 작가이다.

“새금강의 거점 공간인 희희호호아트센터에서 군산역사를 공유하며 작가들의 협업을 강화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통해 서로 동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간 구성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왕인례 작가는 전통한지공예가이며 자수공예가이다. ‘소전공방’을 운영한다.

전국한지공예대전 특선, 한국공예가협회의 금상, 은상,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만만치 않은 내공을 직감했다. 필자 개인적으로 종이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던 터라, 작가님과 친해질 욕심을 냈다.

전은희 작가는 ‘군산예;인(인)마을카페’ 운영한다. 퀼트공예와 전시, 문화예술 관련 강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도시문화와 예술에 관한 지역사회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난 뜨개쟁이다(흐흐). 인생을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듯 살아가고 싶다. 우리는 함께, 따뜻하게, 시원하게 각자 뭔가를 만들고 즐거움을 나누고자 귀하게 모였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은하 작가는 “노래하는 인형 작가예요. 제가 만든 인형들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고, 단순한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담은 예술로서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작지만 편안하고 밀도있는 감동을 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사, 인형공예스토리메이커, 닥종이공예, 리본공예 드림걸즈 운영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왕경희 작가는 토털공예지도사, 업싸이클커피클레이전문가, 재활용양말공예가로 작업하며 천연 자개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담아낸다. 갑오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무무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지 대표

왕인례 작가

박정미 작가

왕경희 작가

채경화 작가

"단 하나의 자개 작품은 당신만의 특별함을 완성한다. 자연이 선사하는 유일무이한 아름다움을 소장해 보세요." 환한 미소로 전시한 작품 설명과 소감을 전한다.

채경화 작가(천연염색, 토털공예)는 '채물드림'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빛고을 작가대전 장려상을 수상했다. "작업은 내게 먼저 힐링과 행복감을 내주는 것 같아요. 여러 작업과정을 힘들게 치르면서도 순간순간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선한 욕심이 솟구치게 한다." 채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 고객과 만나기 위해 대야와 김제의 전통 5일 장을 쉼 없이 발 빠르게 찾아간다. 활동 성과도 꽤 괜찮다고 자평한다.

박정미 작가(철릭한복 디자이너)는 현재 '꼬맴'공방 운영자이다. 공방은 철릭한복 제작과 전시, 상설매장 공간으로, 현재 군산시 동네문화카페에 등록된 곳이다.

군장대학교 패션주얼리학과 졸업. 문화관광부 전국공예공모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전시회, 철릭 패션쇼, 각종 대회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철릭 한복을 널리 알리고 있다. "철릭(綴翼, 고려말 무신이 착용했던 한복)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철릭 한복이 현재의 일상 속으로 새롭게 스며들길 바랍니다."

새금강을 상징하는 로고는 전은희 작가의 자녀인 신윤재 씨가 디자인했다.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런스학부에 재학 중인 신 씨는 '새금강'의 첫 자음을 형상화했다. 디자인을 조합에 기부하며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조합을 기대한다."며 엄마인 전은희 작가를 응원했다.

새금강은 최연성 군산대학교 부총장, 신상철 추억의마케팅연구센터 대표이자 군산시우체통거리경관협정운영회 부회장, 윤영일 군장대학교패션산업과 교수 등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영일(전 군산시의회 의장) 시의원이 참석하고 축사했다,

전은희 작가

이은하 작가

희희호호 갤러리

새금강 - 로컬 비즈니스 기대와 성장

최근 문화기획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컬 비즈니스 관점에서 새금강을 볼 수 있다. '지방소멸 시대'라 한다. 선거 때면 일자리가 없어 청년층이 유출된다고 대기업 유치 등이 공약으로 반복된다.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기획자라고 불린다.

인천의 로컬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길 씨는 자신의 제주, 인천의 경험을 묶어 <로컬의 신> 책을 펴냈다. 책 표지 상단에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았다. 그는 "철학과 시간은 카피되지 않는다. 철학과 시간이 합해진 결과물이 노포다."라고 말한다. 이어 "대기업이 가진 거대한 자본과 인재로도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사회, 판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한다. 로컬의 반란이자 군산의 시작이다.

다시 새금강을 보자. 이 대표는 "군산의 문화적 가치는 근대문화유산의 중심지로서 금강과 서해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문화정책 협의, 문화행사 공동 주최, 예산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기업 및 단체들의 기업문화 마케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화 CRS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싶다."

새금강은 "궁극적으로 지역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 및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당당히 밝힌다.

새금강은 군산사(史)에 기초한 지역학, 인문학과 문화예술이 버무려진 군산 로컬 비즈니스의 작은 서막을 열고 있다. 이를 위해 다소 낯선 기후환경, 노동, 재해, 젠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요구하고 필요한 가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세대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도 보편적인 지역의 가치가 창조적으로 계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 회전수(RPM)가 떨어지지 않는 새금강의 엔진은 언제나 힘차게 움직일 거라 확신한다.

희희호호아트센터

군산시 서래내길 37-14
063-443-0815
010-3900-3129

선행은 소리 없이, 도움은 깔끔하게

안광균 로타리안(온누리도장건설 대표)

글 I 채명룡
ml7614@naver.com

봉사와 희생으로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로타리안들의 선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자'는 마음으로 도장사업을 하고 있는 온누리도장건설 안광균 대표.
2002년 월드컵의 해, 스물의 나이에 매형으로부터 페인트 일을 배우고 30여 년째 한 눈 팔지 않은 도장 전문인이다.
그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 온 로타리안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 그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뜨거운 경험이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새롭게 옷을 입히는 일을 하는 안광균 대표. 그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선행으로 로타리안 사회의 귀감이 되어 왔다.

페인트 칠을 해주는 안광균 대표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를 만드는 로타리안들

인도주의 보조금 사업(안길석 대표 베네딕도 신부, 이지원 총재, 안광균 대표)

해와 달 교실 프로젝트라고요(?)

안광균 대표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 2지역 대표를 맡고 있다.
2지역에는 서군산, 동군산, 새군산, 한사랑, 금강, 태양클럽이 함께하고 있다. 1지역은 안길석 대표이며 군산, 대야, 서해, 반석, 중앙클럽이 소속되어 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이지원 총재)에서는 매년 전북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인도주의 보조금 사업'을 펼쳐왔다. 이지원 총재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각 각 1천만원씩이 지원된다.
안광균 대표가 소속된 군산 2지역은 지난 2024년 11월 1지역과 힘을 합쳐 '인도주의 보조금 신청사업'에 응모했다.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군산장애인복지관(관장 이명재 베네딕도 신부)의 요리 실습 교실을 장애인 등 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안 대표 등 로타리안들은 현장 방문했다. 좁은 공간과 오래된 설비,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작업 공간 등등 개선할 점이 눈에 띄었다.
장애인들에게 요리 교실, 바리스타 교육 등으로 새로운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군산 1지역 안길석 대표

급식 봉사 활동

생필품 지원(삼학동)

안 대표를 포함하는 로타리안, 그리고 복지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보강이라는 큰 틀에서의 환경개선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 공모에는 전북의 15개 지역 로타리가 경합했다. 군산 1지구 · 2지구 연합 사업계획은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낡은 요리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는 일명 '해와 달 교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해와 달이 서로 그리워하고 낮과 밤을 굽어보듯이 이 프로젝트는 안정성 개선과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리라.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

이번 사업에는 안광균 대표(2지역)와 안길석 대표(1지역)는 인도주의 보조금 1,000만원 외에 자체 사업비 550만원, 그리고 싱크대, 개수대, 냉장고, 오븐 등등의 물품 기부, 회원들의 재능 기부 등 줄잡아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

"가장 주안점을 둔 사업은 앉아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실제로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 작업대'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지요."

안광균 대표는 이번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이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리스타, 요리 교실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고 했다.

로타리안들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고, 복지관은 2월 17일 이 실습실 개관식을 가졌다.

복지관 또한 바리스타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이 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작업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시설을 설치하여 높이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 끼임 방지' 안전장치도 부착했다.

이런 모든 일에는 로타리안들의 무료 봉사와 물품 후원을 비롯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로타리안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페인트 작업처럼 깔끔하게
'소리 없는' 봉사

안광균 대표는 깔끔한 일처리로 소문나 있다. 군산지역의 모든 로타리안들이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그 또한 '소리 없는 봉사'로 스스로를 갈고 닦아왔다.
'해와 달 교실'과 같은 사업은 물론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등을 찾아 페인트를 칠해주었던 오랜 봉사 정신.
어려운 곳을 향한 따뜻한 눈길은 오늘의 그를 만든 원천이다.
"이번 복지관의 작업대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바로 차별을 없애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산지역의 로타리안들과 안광균 대표의 이런 마음이 모아져 장애인들의 직업 교육이 한 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길 기대한다.

해와 달 교실 프로젝트 실습실을 활용하는 복지관 교육 참여자들

종합 예술의 엔터테인먼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아토' 고동우 대표

글 I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추위가 물러나고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나는 계절 속에서 무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곳은 한 목표를 향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곳이기도한 군산유일의 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아토'를 찾아가 고동우 대표를 만났다.

예술에 꿈을 담다

어릴 적 동네 형이 연주하는 사물놀이를 듣고는 그 이후로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꿈을 키워나갔다. 국민학교시절 친구들이 음악시간 리코더 시험을 볼 때 혼자서 단소로 시험을 보겠다고 떼를 썼고 중학교 때는 사물놀이반을 결성한다는 음악선생님의 말씀에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사물북을 사려고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진 소년이 제대로 된 국악을 접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고동우는 그 이후 줄곧 국악이라는 세계에 몸을 담고 살아오고 있다.

꿈은 변할 수도 있기에

울산에서 태어난 고동우는 어린 시절 천체물리학자가 되는게 꿈이었다. 수학을 좋아했고 과학실험에 누구보다 진지했으며 나름 학교나 학원에서 인정받는 우등생으로 자랐다. 하지만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이유로 과학경시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이후 조금씩 공부벌레에서 노는 벌레로 변태하기 시작했다. 사춘기 시절엔 집안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중학교를 3군데를 다니면서 공부는 먼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놀 궁리만 하면서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 어른들한테는 착하고 말 잘듣는 청소년으로 보였을테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만가지 불량스런 일들은 다하고 다녔다.

노력은 헛되지 않아

군산에 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3학년 때부터였고 오자마자 치룬 시험에서 반에서 3등을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기대감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가진 않았고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게 되었다. 담임선생님은 군산고등학교 진학을 추천했지만 고동우는 군산제일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순전히 축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드디어 운명적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
'도꼭지' - 어느 방면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진 군산제일고 사물놀이 동아리는 고동우에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한 엄청난 기점이 되었다. 학교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과 다른 학교 사물동아리와의 교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대학진학을 국악과로 선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술에 물들다

'동남풍' 이라는 전통타악을 연주하는 팀의 리더인 '조상훈' 선생님을 만나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2명 더 생겼다. 그 둘 또한 도꼭지 5기로 같은 기수에 3명이 국악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생각하면 좋은 대학 보내야하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물놀이동아리를 뭐라고 생각하셨을지 정말 궁금하다.
우여곡절 끝에 백제예술대학을 진학해서 인생 중 가장 재밋는 기억이 많은 날들을 보내게된다. 사물놀이밖에 몰랐던 머리 속에 국악의 다른 분야들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 그런 와중에 2001년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첫 해를 맞이해서 전국순회 홍보단으로 '동남풍'을 선정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세계소리축제를 홍보하는 공연도 함께 했었다.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2002년에는 중국에 가서 공연까지 할 수 있어 국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였다.

덫에 갇힌 호랑이

다져진 예술감각으로

지금도 1년에 1번 이상은 만나고 있는 정말 좋은 대학동기들을 만나 국악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반성하는 날을 보내다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한 편입을 했지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3.5만세퍼포먼스 배우들

미루어뒀던 군대를 다녀와야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는 남자들은 군악대를 가고 싶어했다. 4명을 선발하는데 20팀이 뭔지도 모를 악기까지 싣고와서 시험을 보니 많이 부족한 고동우는 군악대를 가지 못했다.
사물놀이를 같이 하던 동고등학교 친구놈이 공군을 동반입대할 수 있다해서 그냥 신청했고 면접을 봤고 시험을 봤고 나만 붙었다. 그 녀석은 떨어졌다. 23살.. 당시엔 군대 가기엔 이미 늦은 나이라 그냥 혼자 가기로 하고 공군 병 590기로 방공포대에서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곳에서 보냈다. 군대에서도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선임들을 힘들게 했고 남들은 하는 결혼을 상병 때 하기도 했다. 아마 일반 병사로 결혼휴가 14박15일 받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당시 제 빈자리를 채워주신 선임과 동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달콤한 행복의 시작

제대 후 위기가 찾아왔다. 결혼도 했고 애도 있으니 25살 청년은 장구치고 북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는데 제대 이후 뭘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몰랐다. 한동안 놓았던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것이 더 큰 숙제로 다가왔고 급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버지의 소개로 동ㅇ화재보험설계사로 일을 시작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설계사 생활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전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보이지 않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 당시 25살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물론 주변의 도움으로 2년 가까이 버티며 보험이라는 것을 잘 배우고 나오게 되었다.
보험설계사를 하는 와중에 '예술강사' 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예술의 길을 걷다

예술강사는 학교나 복지시설(보육원,장애인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을 직접 가르치는 것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술수업의 형태이다.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예술 수준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예술인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2006년부터 사회문화예술강사로 시작해서 2007년부터는 학교예술강사도 겸해서 예술강사호 활동을 했고 2008년에는 우수강사로 도지사표창까지 받았다. 예술강사를 하면서 공연활동도 꾸준히해서 2009년에는 대구에서 열린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예술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2006년에 찾아왔다. 군산에 있는 극단 동인무대에서 남자배우를 구하고 있었고 연극인으로 활동하는 배우자 '김복임'의 소개로 조연으로 연극무대에 서게 된다. '유정천리'라는 악극으로 시작한 연극배우의 삶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고 지금까지도 연극배우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에서 배우활동을 하다가 소극장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익산에 있는 '작은소리와동작'이라는 극단에서 단원으로 2009년 '나의라임오렌지나무'부터 2014년 '스트립티즈'까지 배우와 스탭 극단관리 등을 하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술의 터를 잡다

2014년이 되면서 예술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5년 다니던 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지곡동에 '국악놀이터 아토' 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열게 되었다.
공간의 이름을 짓기 위해 이런저런 우리말을 찾다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이 있다하여 '아토'라는 이름으로 확정했다.

누가 떡을 먹을까 한 장면

라는 작품으로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도시에서도 공연을 진행했으며, 익산야행이나 부안야행처럼 지역문화축제에도 아토의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의 예술을 무대화시켜 관객과 관광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비전을 가진 예술로

예술활동은 정해진 것이 없다. 공연을 많이 하는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공연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사람이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사람이 없어서 공연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예술산업에 코로나 팬데믹은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특히나 아토는 성장을 위해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고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이는 아토의 어려움의 시작이자 방향성을 변경하는 시점이 되었다. 코로나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오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조차 취소되고 반려되고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타격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경영 상의 어려움을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원의 변동은 있었지만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소독하는남자들' 직원이 지은 이름이다.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 손으로 빨리 종식시키고 최대한 빨리 예술활동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인든지 할 수 있다는 인생의 기조가 생긴 것이다.
시기에 맞게 소독사업은 호황이라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코로나 시기가 끝나자 매출은 떨어졌고 그간 쌓인 수익은 아토 유지비로 다 소진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술활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하고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 연습을 하였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축전에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도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고, 2023년에는 '누가떡을먹을까' 가족국악극을 만들어 찾아가는 공연으로 전국을 다녔다.

2024년은 코로나는 끝났지만 고동우도 아토도 힘들었던 시기였다. 공연 횟수는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매출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토를 유지해야 공연도 할 수 있기에 많은 고민 끝에 오전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20대에 경험한 보험설계사이다. 삼성생명에서 일하는 연극선배의 추천으로 시작했고 곧 있으면 만1년이 되어간다. 주변에서 예술하는 사람이 무슨 보험설계사까지 하냐는 말고 하지만 난 설계사라는 직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인생의 기조에 걸맞는 직업이다. 아픈 사람들이 빨리 나아야 공연을 보러 올 것 아니겠는가.

예술은 영원하다

군산에서 예술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예술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 어려운 길을 또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모임을 통해 군산예술이 한층 성숙해지고 다툼이나 시기가 없어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 모임에 좀 더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고동우의 인생이 어찌보면 물 흐르듯이 살아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란만장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고동우라는 사람이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극을 하다보면 정말 여러직업을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이 되어본다. 연극 안에 한 조각의 인생이 있다면 인생이란 여러 편의 연극이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다.
고동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술인으로 살아갈 것이며, 죽을 때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재주꾼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

26th 개인전 'Memories 기억' / 장미갤러리

서양화 윤지원 작가

글 I 오성렬
poi3275@naver.com

2010년 여름, 윤지원 작가는 딸과 함께 하루 나들이로 미지의 군산을 방문했다. 이성당 빵집을 들른 뒤 해망동 달동네 마을과 퇴락해가는 도시 곳곳의 모습들을 보았다. 그 쓸쓸한 모습들에서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군산 만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했다. 일제가 떠난 자리에 또다시 승전 강대국 미군들이 진주하는 질곡의 역사 도시, 전국 최초 3.5 독립만세운동의 발발지이면서 일제 잔재가 근대역사문화 관광상품이 된 이 도시를 보며 윤 작가의 감회는 복잡했다. 그녀는 그 느낌을 화폭에 담아 '귀로의 군산'이라는 주제로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이후 2013년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의 전시 역시 주제는 '군산'이었다. 그러다가 3년 전 그녀가 군산을 방문했던 날은 폭설이 내린 어느 겨울날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동경하던 군산 정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작업실에서 윤지원 작가(사진제공=오카도)

윤 작가와 내빈들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 1학년 때 서울로 이주한 윤지원 작가는 미술 명문대인 H대학을 졸업한 뒤 이태리에 유학, 브레나 밀라노국립미술원 회화과 학사 및 석사와 Istituto Europro di Design Milano 일러스트레이션을 졸업했다. 이후 유럽에서 11년여 작가 생활을 거쳐 귀국한 그녀는 통산 개인전 25회와 단체전 14회 경력을 쌓을 정도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군산에서의 전시회는 26회 째 개인전이다.

지난 2월 25일 전시 오프닝 행사에는 문단의 거목인 황석영 작가를 비롯하여 군산시 문화예술국장, 길 위의 사제로 알려진 문정현 신부, 군산문화재단 고보연 대표, 강용면 작가, 신석호 작가, 근대역사박물관장, 고려화방 최창환 대표 등 많은 축하객이 전시장을 메운 가운데 축사가 이어졌으며 파라디소 송성진 대표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프닝 서두 마이크를 잡은 윤 작가는 인사말에서 "전시 기회를 주신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귀한 발걸음으로 전시관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근대성은 제 작업의 주제인 기억과 잘 맞아서 어울리는 장소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작업의 주제는 역사 장소 기억 고독...등이고 작업 시 장소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작업은 쉽게 풀린다. 그림 그리기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에서 시작된다. 이번 전시는 하제마을 팽나무, 군산미군기지, 영화동, 제주알뜨르비행장, 그리고 예전 작업 3점을 포함해서 총 유화 22점"이라고 밝혔다.

축사 중인 황석영 작가

인사말하는 윤 작가

'봄을 기다리는' 작품 옆에서 윤작가와 고려화방 최창환 대표

또한 "누군가는 근대성이 진부하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화두로 삼아서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은 다르다. 그 어떤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동시대적이고 가장 앞선 문화가 될 수 있다. 해석은 예술가의 능력이고 문화의 힘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서 충격을 준다. 전통적인 해석이 관습이라면 재해석은 작가의 주관적 새로움이다. 재해석은 또 다른 재해석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 상태로 두면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동시대적으로 해석하면 현재형으로 살아 있게 된다. 세상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그 능력이 예술가의 역할이다. 군산이 근대 유적이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예술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강한 문화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맺었다.

-전시 팜플렛에 실린 '기억' 작가노트-(요약)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하제 팽나무를 향해서 천천히 운전을 했다. 함박눈이 흩날려서 앞을 보기도 어려웠고 천지가 눈으로 덮여서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저 멀리 눈 속에서 육백 년의 긴 세월을 견뎌낸 팽나무가 위엄 있게 서 있다. 그림은 작가가 고유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대응하는 과정이다. 기억은 현재로 소환될 때마다 새롭게 해석된다.

군산은 근대의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다. 시간과 함께 쇠락해가는 흔적은 아름답고 어딘가 쓸쓸한 연민을 느끼게 한다. 그림은 과정이고 예술은 연민이다. 이번 전시 '기억'을 준비하면서 나는 군산이 지닌 근대의 기억들을 소환해서 동시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작가에게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하려는 실험정신이 중요하다.

군산 미군기지 인근의 벌판에 서 있었는데 머리 위에서 여러 대의 전투기 연습비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하지만 굉음으로 귀가 먹먹했다. 이것은 군산의 익숙한 현실이다. 오래된 건물이나 역사적 현장을 마주하면 그 장소가 내게 뭐라고 말을 걸 때도 있다. 나는 그 울림에 촉각을 세운다. 역사 속에서 핍박받고 익명화되어 존재 자체도 잊힌 많은 이를 상상해본다. 그리고 작업으로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끌어당김이 있다.

'봄을 기다리는' 제호의 작품은 120호 3개 연작이다. 겨울은 가고 봄은 아직 오지 않은 어느날, 동백은 처연하게 떨어져서 주변을 붉게 물들였다. 거름 냄새가 심한 배추밭과 무밭, 진흙탕길을 지나니 우뚝 솟은 제주의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가 눈에 들어왔다.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흙무더기가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처형된 장소라고 한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방문한 장소의 사진을 찍고 작업실로 돌아와 그 영감을 캔버스에 옮긴다. 단순화한 최소한의 묘사, 과감한 구도, 수평과 수직 대각선으로 화면 전체를 만드는 직선의 구도다. 채도를 떨어뜨리고 대상은 선명하거나 흐리거나 지워서 흔적만 남기고 마치 무대장치처럼 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마음을 다한 그림이 감상자에게 새로운 환기를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해 본다.

윤지원 작가

<평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윤진섭-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풍경을 익숙하지 않은 풍경으로 전환시키는 윤지원 작가의 전략은 채도를 떨어뜨린 색채뿐만 아니라 다소 어눌해 보이는 화풍에 있다. (중략) 구도의 설정은 사실 작가의 감각과 재능, 그리고 거의 직관에 가까운 즉흥적 창의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윤지원은 화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재능을 타고난 작가다.

국내외 전시이력 : 개인전 26회, 단체전 15회
저서 :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었다> 휴먼큐브
장미갤러리 전시 : 2025. 2. 25~4. 27

장미갤러리에 걸린 전시 현수막

진포해양테마공원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정리·사진 I 김혜진
dhik0324@hanmail.net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군산 근대화 여행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군산시는 2024년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70,285명 증가한 59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후 박물관이 정상 운영의 궤도에 재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 박물관으로 개관한 박물관은 2015년 전국 공립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에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도 박물관은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관광 명소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2024년 근대 역사문화 관련 전시 행사는 총 130회로 ▲박물관 기획전 4회 ▲미술관 특별전 5회 ▲시민공모전 16회 ▲명절 행사 ▲거리문화공연 ▲주말 상설공연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박물관은 현재 벨트화 지역과 분관 전시관을 통합 운영하여 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분관 전시장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체류 연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은 근대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갤러리, 위봉함(진포해양테마공원), 장미공연장 등 벨트화 권역과 3.1운동100주년기념관, 채만식문학관 등 전시장 8개소가 있다.

진포해양테마공원(사진=군산시)

백년광장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가족들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군산시 해망로 240)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48㎡ 규모로 지난 2011년 개관했다.
군산의 근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개항 이후 군산이 겪어온 변천사와 근대 유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역사는 미래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 무역항이자 해상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지금도 서해 물류 유통의 천년,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무역항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양물류역사관, 어린이체험관, 독립영웅관, 시민열린갤러리, 근대생활관, 기획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다.

근대미술관(구 일본18은행)

군산근대미술관(군산시 해망로 230 1층)은 구 일본18은행을 2008년 2월 28일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후 보수·복원을 통해 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18은행 건축자재 전시 공간, 안중근 여순감옥 재현 공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근대건축관 뒷편의 나무

진포해양테마공원에는 6.25 전쟁 유엔참전 21개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구 조선은행을 2008년 보수·복원 과정을 거쳐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대건축물 미니어처 전시, 경술국치 추념 전시실, 일제강점기 방공호를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 양 옆으로 군산세관과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옛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국가등록문화재 제372호)이 있는데 이 중 은행이었던 두 건물은 현재 각각 군산근대건축관과 근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항에 인접한 장미동에는 일제강점기 금융기관과 공공 기관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곡물을 반출하고 토지를 강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가슴 시린 역사를 지니고 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

실제 군함을 개조해 만든 위봉함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는 진포해양테마공원(군산시 내항2길 32)은 대한민국 육·해·공의 자산을 한 곳에 관람할 수 있으며, 위봉함 내부 전시를 통해 해양 전쟁사와 해양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바다를 이웃한 진포해양테마공원(내항2길 32)은 군산시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에서 시민들의 안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역한 국군 장비들을 재정비한 뒤 전시하고 있다.
내항 주변은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을 이용한 함포해전으로 기록된 '진포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고려 후기 1380년 국내 최초로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 장군 등의 지휘로 고려 수군이 왜선 500여 척을 물리쳤다.

화포들과 위봉함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입구

장미갤러리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채만식문학관

장미공연장, 장미갤러리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군산의 자랑스러운 3.5 만세운동과 민족의 항거를 조명하기 위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생생한 자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이 역사를 더욱 가까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념관은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3.5 만세운동을 이끈 영명학교를 재현해 3층 규모(연면적 969.2㎡)로 조성했다.
기념관 1층 추모기록실은 3.5만세운동과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으로, 2층 역사재현실은 관광객이 그날의 함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는 공간으로 꾸몄다. 3층 체험교육실은 태극기 만들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독립군 기념촬영 등을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3.1운동기념관 언덕빼기를 내려와 길게 늘어진 해안도로를 걷다 보면 진포시비공원, 채만식문학관, 물고기가 다니는 길 '어도생태학습장', 최무선 장군을 기리는 '진포대첩비' 등 여유롭게 걸어서 역사와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만한 코스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채만식문학관

군산 출신의 대표적인 문학가 채만식의 문학을 통해 시대상을 이해하고 창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시는 2025년에도 박물관 벨트화 지역 및 분관 전시관에서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역사 체험 활동과 문화관광 해설사 투어,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전시·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근대화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중심도시답게 근대역사와 관련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다시 보고 싶고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역사 도시, 군산의 상징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대표로 하는 원도심의 근대역사 관광 자원과 고군산의 해양관광 자원을 군산 관광의 투톱으로 삼아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세미술 2. 비잔틴 미술

아야 소피아 성당의 그리스도 모자이크

중세미술의 두 번째 시간 '비잔틴 미술'이다. 이 시기의 미술은 미술사에서 암흑기로 불린다. 고대 미술에서 진보적 발전을 거듭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모습이 드러난 시기이다.

고대 시대의 미술은 창의적인 면모를 보이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었다. 그리스와 로마는 황금 비율을 통해 완벽한 아름다운 인체를 조각하는 것에 집중 했었다. 이것은 발전을 거듭하며 인간과 일상의 실용성이 녹아있는 미술로 변화하며 중세 미술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예술적 변화의 흐름은 충분히 좋은 바탕 이였지만, 오로지 '크리스트교'라는 종교에 집중 되어있던 중세는 확실히 미술이 정체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미술도 신의 세계가 있었고, 중세 미술 역시 신의 세계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중세에서 만나는 신을 표현한 미술은 신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제한된 세계관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이 중세 미술을 이해하는 중요점이다.

중세 '비잔틴 미술(Byzantine art)'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긴 기원후 330년경부터 이 도시가 멸망한 1453년까지의 동부 지방 예술을 말한다. 당시 지형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는데, 여기에서 동부지방인 동로마 지역이 비잔틴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비잔틴'이란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뜻에서 시작 하였다. 건축, 조각, 화화에 이르는 비잔틴 미술의 복잡한 형식들을 콘스탄티누스황제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동로마에 기독교 문화(크리스트교)를 정착시키며 비잔틴 미술을 발전 시켰다.
기독교와 천주교처럼 예수를 섬기는 종교를 '크리스트교'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양상이 강해지면서 예술의 전반적인 흐름은 신 중심의 성서의 내용과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렇듯 종교적 가치가 중심축을 이루다보니 성서의 주된 내용들은 기록하는 역할은 잘 되어지는 반면, 일상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발전들은 멈춰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발전이 멈춰질 지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예술의 흔적은 다음 걸어갈 예술 형태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의 전통위에 동부지방 미술을 홍합하게 됨으로 크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동서양의 융합된 미술이 탄생하게 된다.

'크리스트교'안의 성서의 내용을 빛나게 만들어 준 비잔틴 미술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유리조각을 이용하여 빛을 활용함으로 건물 내부를 화려하게 만든 모자이크이다. 두 번째는 목판에 새겨진 성모나 성가족 회화의 '성상화'들이 있다. 세 번째는 '삼각 궁륭'을 통한 구조적 형식으로 인하여 거대하고 확 트인 내부 중앙의 구조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잔틴 미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미술품 세 가지를 찾아보자.
'빛은 신과 작품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듯이 첫 번째의 비잔틴 모자이크 예술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5~6세기 무렵 세계 역사 속에 유명세를 남긴 수많은 모자이크 중 몇 작품은 터키의 비잔티움과 이탈리아의 라벤나에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주제는 역시 종교와 관련이 깊었으며, 예수는 초월적 신의 존재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써 표현 되었다. 이 당시의 모자이크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신의 광명을 대신하기에 만족할 만한 재료의 조건을 갖추었고, 이를 통해 묘사된 장면들은 웅장하고 화려하여 위엄 있는 형태를 이루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막시미아누스 주교의 입장

위 작품이 모자이크를 이용한 대표작중 하나이다.
'산 비탈레 성당'의 주교 막시미아누스는 금으로 된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정 가운데 자리 잡은 인물을 주목해 보자. 이는 이 교회의 우두머리 사제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이다. 황제는 거의 모든 부분이 금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금색 바탕에, 금관을 쓰고, 금빛 그릇에 빵이 있으며 그의 머리 위 후광까지도 금색으로 되어있다. 이는 그가 교회의 성자임을 상징하며 어깨의 견장은 세속의 권위를 말한다. 권위의 표현은 더 나아가 옆에 있는 한 인물의 발을 밟고 있는 행위를 통해 막시미아누스의 권력적 힘을 가늠 해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의. 성모 (성상화)

비잔틴 미술의 두 번째 큰 특징은 '성상화'이다. 블라디미르의 '성모' 성상화는 나무판에 그려진 작은 그림이다. 어린 성자와 성모의 모습인 이 작품 역시 거룩함을 상징하는 후광이 있으며, 정면을 응시함으로 긴장된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이 그림에 신적 믿음을 불어 넣으며 전쟁에서도 승리를 얻기 위해 직접 전장에 지니고 갔다고 하는데, 훗날 우상숭배라 하여 금지 되었다고 한다.

아야 소피아 성당

세 번째 비잔틴 미술의 대표는 건축물이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웅장한 교회를 건설하고자 마음먹고 독특한 돔 형태의 건축물을 구상하였는데 그것이 '아야 소피아 대성당'이다.

'아야 소피아'는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구조는 축구장의 3배가 넘는 크기이다. 지난 호에 실린 로마의 직사각형 건축 '바실리카'틀 위에 중앙부에 '삼각 궁륭'의 원리인 거대한 아치 네 개를 연결되었으며, 40여개의 창이 돔의 하단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웅장함은 최고점을 장식해 냈다. 이렇듯 연합된 구조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비잔틴 미술의 총집합체가 이곳 '아야 소피아' 성당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고대 로마의 거대한 스케일은 신성을 중시한 동방의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만나며, 신을 더욱 거룩하고 위엄 있는 존재로써의 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술품으로 단계를 거듭해 나갔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중세미술 두 번째 비잔틴 미술을 마무리 하며, 차후 중세 미술의 세 번째 주자 로마네스크 미술로 바톤을 넘겨보려 한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기후 슬픔이라는 거대한 괴물! 또는 기후 변화의 꼭두각시

클레이튼 페이지 알던, 김재경 옮김. <내 안에 기후 괴물이 산다>. 청림출판, 2024.

2024년 여름은 정말 더웠다. 더워도 너무 더웠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작년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5.6도, 열대야 일수 전국 평균 20.2일로 평년 대비 3.1배를 기록할 정도로 무더웠다. 그런데 더 걱정인 것은, 그리고 믿고 싶지 않지만, 많은 기후학자나 기상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그래도 작년 여름은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 비하면 가장 덥지 않았던 해로 기록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실제로 "남극 기온은 정상을 한참 벗어나 섭씨 21도까지 치솟는"`(48면) 등 남극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들은 기후 위기의 단계를 지나 기후 재난이나 재앙의 단초나 전조를 징후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의 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는 그 동안 그리고 지금도 기후 변화의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겨 소멸할지도 모르는 태평양의 투발루를 비롯한 일부 섬나라와 그곳 주민들의 문제일 뿐이지 나와는 거리가 먼, 그것도 아주 먼 일로만 여겨왔다. 그런데 이번 독서칼럼 대상 텍스트로 소환한 <내 안에 기후 괴물이 산다>는 그러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안이하고도 잘못된 것인가를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 주었다. 더불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폭염 속에서도 오한을 느낄 것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카피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했다. '기후변화는 어떻게 몸, 마음, 그리고 뇌를 지배하는가'라는 부제의 이 책은 다양한 신경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기후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 인식이나 판단, 행동이나 결정 등의 문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의 유용한 처방 가운데 '두한족열'(頭寒足熱)이란 지침이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머리는 차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지침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좋지 않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기라도 하면 머리는 지끈지끈 뜨거워지면서 발은 차가워진다. '수족냉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손발이 하나같이 차가운 것도 그 맥락의 연장선이다.

한편 매년 여름만 되면 언론을 비롯한 대중매체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불쾌지수'를 발표하곤 한다. 폭염이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될수록 그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흔들리게 되면서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함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화나 짜증을 쉽게 내거나 공격성의 강도나 빈도 또한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한낮의 폭염이 열대야로 이어져 밤잠을 설치게 되는 상황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반사적으로 내뱉게 되는 속된 표현이 있다. '더워 미치겠다'라는 표현이다. 다른 나라의 언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무더운 날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혹한의 엄동설한에는 '추워서 미치겠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표현 관습에는 신경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신경과학자이자 뇌과학자인 클레이튼이 환경 저널리스

트로 8년 동안 활동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뇌에 미치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피해에 관해 정서적으로 풀어가면서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6면)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그는 그 동안 막연한 짐작이나 경험 차원의 추론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후와 공격성 및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많은 신경과학적인 연구와 관찰 결과를 종합해서 밝히고 있다.

흔히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한다. 그 명제는 이 지구상에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체의 위계에서 인간을 최고로 고귀한 자리에 배치하는 '종차별주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담론적 권위와 설득력을 누려왔다. 그 권위와 설득력은 또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랜 세월 난공불락의 요새나 천혜의 철옹성과도 같은 성채의 특권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이 책을 읽고선 오랜 세월 신성불가침의 선험적인 진리로 군림해온 그 명제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기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인간들이 하찮은 미물로 하대하거나 타자화하는 물고기를 비롯한 여타의 동물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물고기를 비롯한 곤충이나 포유류 등 모든 동물들에게서 기온과 공격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작고 노란 물고기인 레몬자리돔의 경우 수온이 높아질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졌으며 자신을 가두고 있는 유리병을 공격하는 확률 또한 평균 4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검은과부거미의 경우 또한 주변이 더울수록 어린 개체가 동족포식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알프스주름개미의 경우도 기온이 높아지면 다른 군락의 일개미를 찾아낸 다음 포로로 끌고 가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중국의 붉은털원숭이들도 섭씨 27도 이상일 때 서로 싸우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한다.'(113-116면) 이러한 사례는 "비슷한 사례를 열거했다가는 이 책이 배로 두꺼워질 것이다"(116면)는 재치 있는 진술이 웅변하는 바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클레이튼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뇌 조직은 열에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다. 온도가 카타르의 7월 평균 기온 수준까지 오르면 뇌 세포의 일부는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을 정도로 기온은 우리의 두뇌, 행동, 인식, 결정에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기온이 급격히 치솟자 강력 범죄, 가정 폭력, 혐오 표현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폭염 빈도가 치솟자 문제 해결 능력, 인지 수행 능력, 학습 능력도 덩달아 떨어졌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신경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빈도나 뇌 질환에 걸리는 빈도 역시 높아지는 중이다. 출입국관리소 심사관은 더운 날일수록 망명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석방 심사에서도 가석방을 불허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리고 직 장 내 차별과 갑질 또한 당연히 많아진다. 심지어 뇌에 작용하는 일부 약품은 기온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줄어든다.'(26-98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2011년, 투수와 타자의 상호작용을 무려 456만 6,468건 포함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경기 6만 건의 자료를 분석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상대방 타자를 고의로 맞힐 보복성 4구의 경우에도 기온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고 한다.

몰론 공격성이나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마저 폭염 속에 증발시킬 필요는 없다"(134면)는 재치 있는 표현처럼 인간의 공격적 충동이나 범죄의 모든 원인을 기후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폭력적인 재단이나 결정론의 오류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신경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는 불편한 진실처럼, 기온이 오르면 인간의 폭력적인 행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폭력과 공격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 가능한 이론이자 측정 가능한 현상(130면)이라고 한다. 핀란드 경찰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회자되고 있는, "추운 날씨가 최고의 경찰이다"(128면)라는 냉소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기후 슬픔이라는 거대한 괴물'(26면)이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후변화는 공격성 및 폭력성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빈발하고 있는 '대형 산불이나 폭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적 트라우마는 높은 온도가 폭력성을 유발할 때처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주체성을 앗아가 '기후변화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요코 노무라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그 결과에 의하면 10년 전 뉴욕을 강타한 폭풍 샌디를 산모의 자궁 안에서 경험하고 태어난 아동들의 경우 불안 장애나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각각 20배와 30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행동장애를 겪을 가능성 또한 각각 60배와 20배 더 높게 나타났다'(222-228면)고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제 '강 건너 불'을 보듯 대할 일이 아니라 묵시록적 징후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위기를 지나 기후 재난이나 재앙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현재, 이 책의 일독을 권하는 추천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뇌 과학자인 정재승 교수와 뉴스위크는 각각 "기후변화는 더 이상 내 삶과 동떨어진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내 뇌 속에 똬리를 튼 괴물같은 현실이다"(11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현재의 위협이다."(9면)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거이기양이체(居移氣養移體), 손님별 체질 음식으로 한식메뉴를 추천하라

창업을 하려는 이들은 메뉴에 공을 많이 들인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메뉴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그 누구도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한다. 필자가 창업일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산뜻하고 참신한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문화가 새로운 문화권에서 대중화되고 토착화되려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창업자들은 새롭고 이국적인 메뉴를 빠른 시간에 대중화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마케팅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는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야만 대중화되고 문화로 흡수될 때 안정된 메뉴가 될 수 있다.

세상이 많은 메뉴들로 넘쳐나고 있다.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새로운 메뉴를 찾기보다 한국적인 메뉴가 가장 세계적인 메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구태여 외국의 낯선 음식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까지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이 때, 건강한 음식의 대명사인 한식을 바탕으로 남들과 다른 창업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한식으로 남들과 다르게 하라고 해서 퓨전 한식을 떠올렸다면 곤란하다. 퓨전 한식은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반짝 아이템이지, 장기적인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아닌 괴상한 음식이 탄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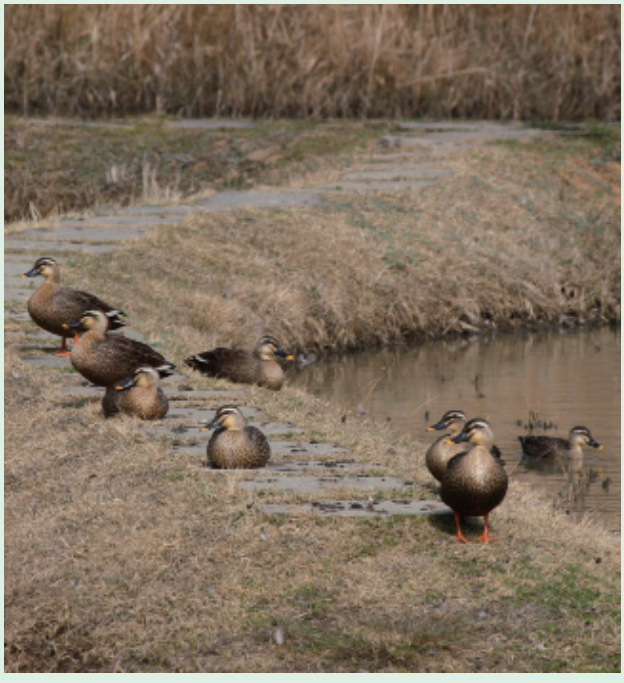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메뉴를 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다. 일본에서 유래됐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이 된 돈가스를 어린이가 먹는 돈가스, 노인들을 위한 돈가스, 여성들을 위한 돈가스로 나눠 나이별, 체질별로 내용물과 소스 배합을 달리하는 것이다. 설렁탕, 삼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등에 적용 가능하다. 손님이 입장 시 자신의 나이와 체질을 알려주면 식당에서 그 손님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추천하고 서비스 할 수 있다.

거이기양이체(居移氣養移體)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기상이 달라지고, 먹고 입는 것에 의해 몸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도 있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식 전문점을 오픈 한다면 체질 맞춤형 식당 오픈도 가능하다.

지금은 돈을 벌 루트는 많아졌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절대 아니다. 특히 외식 창업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정성을 보여야 고객의 발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필자가 추천하는 한식 창업의 주인공은 아마도 고객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분들이 아닐까 한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흰뺨검둥오리의 시간을 기다리며



추워 몸을 부풀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흰뺨검둥오리(국립생태원 습지 3월)

주홍색 다리가 매력적인 오리에요. 뺨에 하얀 동그라미가 있는 흰뺨오리가 있다면 하얀 바탕에 줄무늬가 들어간 새라서 흰뺨검둥오리라고 불러요.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 날아왔다가 앙, 여기서 주저앉아 살만하네 하고 눌러 앉아 버렸나 봐요. 여름에도 보이는 텃세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한때 AI 주범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데 아니라니 다행이지요. 쟤들은 엄마 따라 도로를 횡단하거나 무리 지어 다니는 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일부일처지만, 새끼는 엄마가 키운다고 해요. 뭐 새끼들이 저리 이쁘니 어쩌면 어미가 욕심을 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3월, 국립생태원 습지에서 찬바람에 몸을 부풀리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담았어요. 온라인에서는 어미가 새끼 여러 마리를 거느리고 도로를 횡단하는 귀여운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언젠가 지인의 SNS에는 고속도로에서 오리가 새끼들과 횡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차를 멈춘 적이 있었다는 글이 있었어요. 댓글에는 위험한 일이니 그러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많이 올라왔지요. 이런 동물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도로에는 생태통로라는 것이 있지요. 잠시 샛길에서 생태통로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직 흰뺨검둥오리가 한 줄로 새끼들을 거느리며 이동하는 장면을 직접 담아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런 풍경 앞에 서 있고 싶어요. 오리들을 지켜주면서요. 그때는 위험하지 않게 새들이 맘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길 바라면서요.

신재순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생동하는 봄 맞이 신춘 음악회 개최
바이올리니스트 이근화, 객원지휘자 강한결 출연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4월, 군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3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62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를 갖는다.

올해 군산시립교향악단 전국 협연자 오디션에 최종 합격한 바이올리니스트 이근화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며, 객원지휘자 오디션에 합격한 강한결이 '슈만 교향곡 1번'으로 관객들에게 힘찬 지휘를 보여줄 계획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근화는 독일 뮌헨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실력파 음악가로 화려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진 소리를 선보인다.

입상 및 연주 경력도 화려해 이화경향콩쿠르, 부산음악콩쿠르 모두 1위를 수상했으며, 대구시향, 부산시향, 김천시향, 전주시향과 협연,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서초 실내악 축제 등 국내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객원지휘자 강한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군산시립교향악단 제162회 정기연주회는 전석 유료 5.000원으로 만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오는 4월 1일까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063-454-555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토로 203
www.gunsan.go.kr.arts/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 자문기구 결성

군산시, 지난 17일 2025년 축제위원회 개최
신임 축제위원들과 작년 성과 공유, 발전 방안 논의

군산시가 올해 새롭게 위촉된 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2025년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육성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축제⌧관광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진행했다.

논의된 축제들은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꽁당보리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짬뽕페스티벌 등 군산 6개 주요 축제였다.

참석자들은 ▲2024년 축제 별 운영 결과 분석 ▲2025년 축제 프로그램 개선안 ▲방문객 편의 증대 관련 아이디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군산시는 다가오는 꽁당보리축제를 시작으로 각기 다른 컨셉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군산보리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농업축제인 '꽁당보리축제'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성동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에는 손편지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우체통거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근대문화와 시간여행을 컨셉으로 한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 10월중에 다양한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짬뽕페스티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7월에서 8월에 걸쳐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와 8월에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군산문화재야행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부시장은 "축제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올해도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옥구-옥서 권역 행복콜버스 신규 운행

3월 4일부터 옥구-옥서 권역 운행 시작
농촌 지역 주민 이동편의 증진 기대

군산시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콜버스가 3월 4일부터 옥구-옥서 권역까지 확대 운영된다.

현재 군산시에는 8대의 행복콜버스가 임피·서수면, 회현면, 대야면, 가력항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옥구·옥서면 신규 운행에 따라 5개 권역에서 총 10대의 행복콜버스가 운영된다.

군산 행복콜버스는 이른바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버스로 전화를 통해 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지정된 승하차 지점)까지 왕래하는 방식이다.

운행 방식은 ▲회현면과 임피면, 서수면은 호출제 ▲대야면은 노선제와 호출제 혼합 ▲가력항은 배 시간표에 맞춰 1일 3회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회현면은 오전 7시~오후 6시, 임피·서수·대야면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이다.

새롭게 운행하는 옥구·옥서 권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제로 운행된다. 운행 대수는 2대로 이용요금은 500원이다. 시내버스로 환승할 땐 일반 버스 요금에서 500원이 차감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행복콜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063-454-9874)로 이용 시간 한 시간 전까지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군산 행복콜버스는 대중교통 운행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18년 8월 회현면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후 점차 운행 권역을 확대해왔다.

이번 행복콜버스 확대 운영을 통해 군산시는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옥구·옥서면 행복콜버스 신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수요와 이동패턴 데이터를 수집하여 앞으로의 운영 방향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안까지 운행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장거리를 걷지 않고도 편리하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시 고용률·취업자, 전년 대비 상승

2024년 하반기 고용률 59.4%
전년 동기대비 0.6%p 증가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2024년 고용률 59.4%로 전년동기 대비 0.6% 포인트(p)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13만 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00명(1.02%) 증가했다.

군산시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1.5%로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하여 5년 연속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천 4백명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3만 9,4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백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전년동기 대비 0.2%p 증가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15~64세의 고용률은 64.8%로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하여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근취업자 변화 추이를 보면 군산시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3천 5백명이 감소한 7천 9백명이며,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수는 12만 9,400명으로 4,800명 증가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군산시는 올해도 청년취업, 시민밀착형 일자리 창출,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에 따른 취업지원, 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서해안 의료허브, 군산전북대병원 '첫 삽'

지난 19일 사정동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
오는 2028년 10월 개원 목표로 3월 착공…의료시설 확장 기대

군산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난 2월 19일 사정동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 을 마쳤다.

기공식에는 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과 이사 장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신영대 국회의원, 전북특자도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비롯한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2009년 새만금지역 분원의 타당성 검토에서부 터 시작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서해안 시 대 최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북대병 원의 도전과 군산시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희망이 어우러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며 2013년 1 월 교육부로부터 건립사업 승인을 받았다.

환경문제와 부지변경,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 등으로 난항을 겪어 왔지만 전북대병원과 지역 주민, 정치권, 지자체,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 과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특히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긴밀한 협력, 정치권 의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고 지역 사회의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며 2028년 10 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게 됐다.

신설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 원(국비 99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의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 공하게 된다.

또한, 서해안 의료 허브로써 중증환자와 응급환 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 을 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 임질 핵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지역 의료 서비스 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 는 지역응급의료 인프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 설이 착공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병원 이 계획대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산전북대병원이 심·뇌혈관 등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훈련기관 모집

청·장년층 취업, 기업 인력난 해결 나선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

군산시는 오는 3월 6일까지청·장년층의 취업문 제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2025년 맞 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모 집한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청·장년 실 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 가계소득에 기여 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만드 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으로 6개 훈련기관에서 1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193명의 교육 수료 생이 배출됐으며, 이 중 143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평균 69%의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훈련기관 자격 조건은 군산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 개발기관이며, 모집 훈련과정은 5개 과정 내외로 용접, 건설기계, 전기 설비, 전산 세무회계 등 인력 수요가 많고 취업 가능성이 높 은 직종을 우선 선정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3월 중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각 기관은 과정별 20명 정도로 10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군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은 4~6개 월 동안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 우선채용 협약을 맺은 관내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취업 연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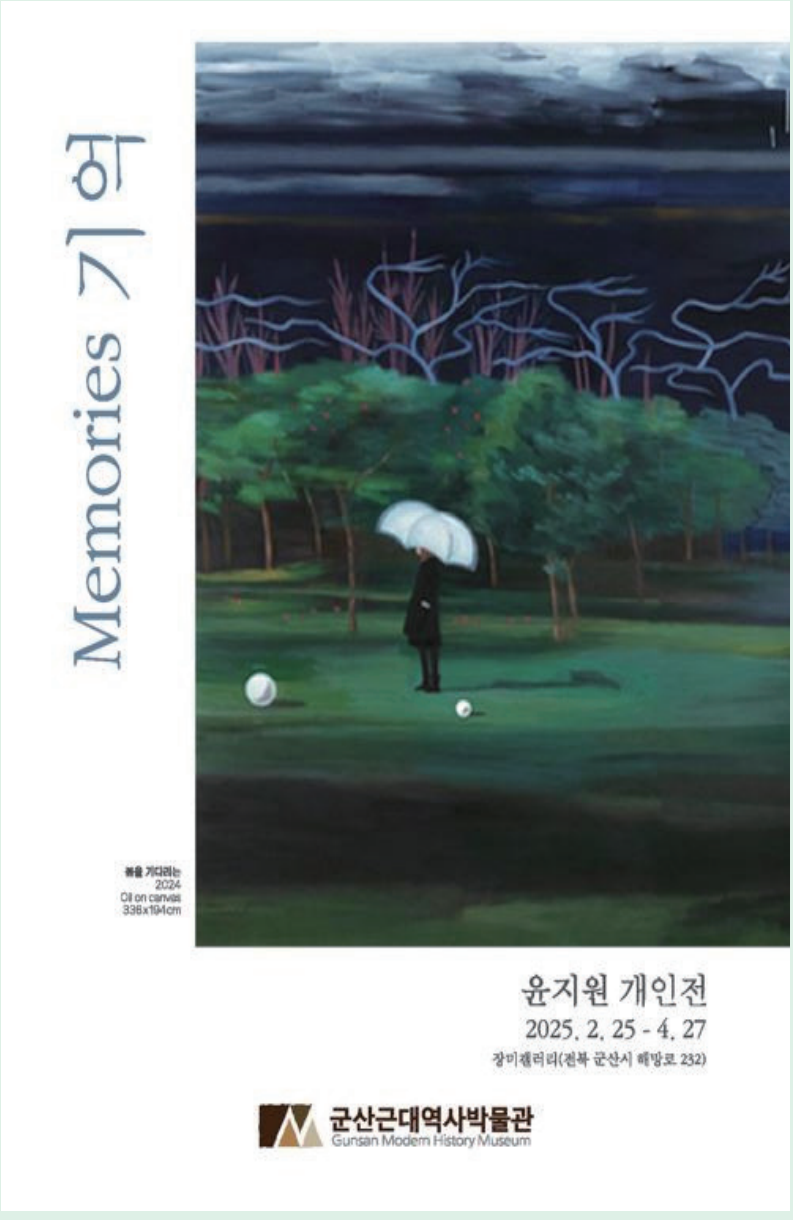
군산시는 선정된 훈련기관에 1인당 직종별 훈 련비용 기준단가(고용노동부 고시)를 적용한 훈 련비를 지급하며, 교육생에게는 월 30만 원의 훈 련수당과 훈련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한편,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454-43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윤지원 화가 개인전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작품 선보여
4월 27일까지 장미갤러리에서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박물관 분관 장미갤러리에서 군산의 다양한 기억들을 담아낸 윤지원 개인전 '기억'을 개최한다.

윤지원 화가는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을 개최하면서 왕성한 전시 활동을 선보이는 작가로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작품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화가는 군산 지역의 현실을 상징적이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물상으로 변형해 관객에게 과거와 현재, 개인의 서사와 보편적 주제의 융합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작품에서 기억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보여줘 자아와 세상 사이에서 시대를 초월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순간을 보여 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역인들과 공감과 연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작품에 표현된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현재의 자신과 군산이라는 장소와 소통해보길 바란다"며 "그 소통은 일반적 언어보다 더욱 감각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미갤러리는 박물관 분관이자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공간 제공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군산시 도시숲 조성, 지역사회 헌수 활발

㈜대운산업개발, 6,800만원 상당 도시숲 조성
녹색 숲 조성 참여를 위한 기증 릴레이 이어져

군산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유도를 위한 '미래의 푸른 숲' 조성 사업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쇄도하고 있다.

㈜대운산업개발 함경식 대표가 지난해 12월 준공한 철길숲 1구간(활력림) 일원 그리심 교회 옆 유휴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해 기탁했다.

군산시는 녹색도시의 비전을 담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전체 사업 구간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총 2.6㎞로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 등 4개 테마숲으 로 꾸며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 미래의 숲 조성 사업의 하나로 범시민 참여 헌수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 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5만 7,000본(헌수 추 정금액 11억 원)의 수목을 헌수받은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조성 중인 철길숲 4개 구간 중 활력림(사정삼거리 일원)과 어울림(군산화물역 부지) 구간 1.2㎞가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완성된 구간은 군산선의 역사를 담은 역사 가벽과 원형이 보존된 철길 산책로로 조성됐다.

함경식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산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뜻을 같이하고 싶었다"며 "지역의 기업인 으로서 동참하고 싶어 기탁을 했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함 대표의 헌수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헌수 활동에 동참해 준 개인과 단체의 소중한 뜻 이 더욱 모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사격' 나선다

기존 '원스톱지원센터',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
기업 애로사항 검토, 해소방안 등 적극 조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한층 강화된 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지원단은 최근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행정적 요구와 애로사항 해결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식 출범됐다.

기업의 다양한 요청을 신속히 반영하 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행정 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맞춤 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기업 밀착 지 원은 물론 관계 부처,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대외적 협업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소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구성한 '새만금 인재 양성 태스크포스 (TF)'의 기능도 보다 강화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한 고용특구와 연계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구상이다.

지원단장은 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 을 보유한 과장급(4급)이 맡는다.

기존 임시조직에서 독립된 별도 부서 로 개편되며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 지 원 정책의 추진 동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기업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 내 입주한 기업들의 투자가 실질적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새만금이 기업 지원 특화 산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www.saemangeum.go.kr/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추진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겪는 시민들 대상 대화 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군산시보건소가 올해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서비스를 받게 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비용의 0~30%)이 발생할 수 있다.

회당 상담 비용은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 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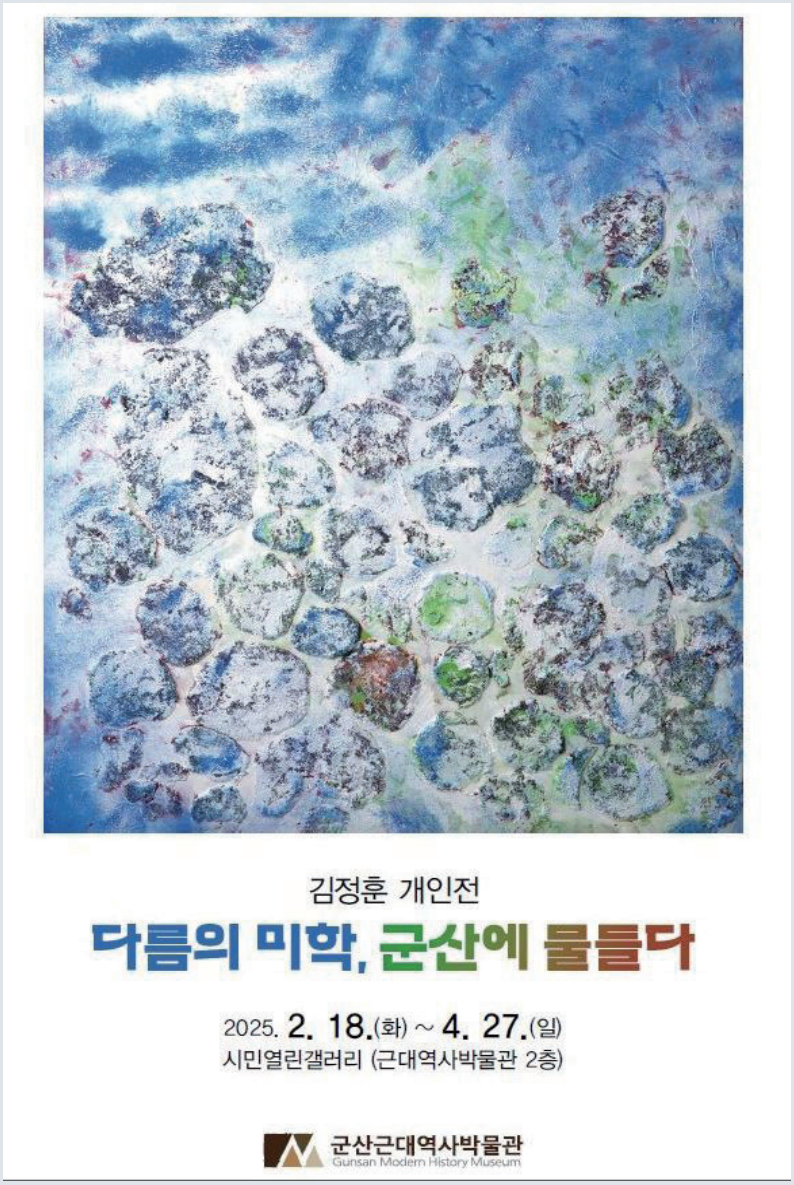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정신건강계(063-454-50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www.gunsan.go.kr.health

김정훈 개인전 <다름의 미학, 군산에 물들다>

일상의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 제시하는 추상화 15점 전시
4월 27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2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에서 김정훈 개인전 '다름의 미학, 군산에 물들다'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독창적인 표현력과 감각을 통해 일상의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제시하는 추상화 15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아 김정훈 작가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한편 활발한 전시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자폐인 화가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단어인 '다름'의 가치를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까지 총 세 번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화가는 군산이라는 지역과 일상에서 느낀 감각을 율동하는 색채와 절제된 선으로 표현해 내면의 세계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김정훈 작가만의 표현기법으로 자유롭게 그려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자유로이 감정의 세계를 탐험하고 시각화하는 특징이 김정훈 작가의 매력이다"며 "관람객 여러분도 작품을 보고 그 자유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감정의 세계를 탐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열린갤러리 전시장은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공간 제공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군산 드림스타트-한국부모교육연구소, 협약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 되기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모 간 소통하는 자조모임 형성 위해 마련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한국부모교육연구소(소장 서유지)가 지난 2월 21일 부모 자조 모임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 되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모들이 서로 소통하며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조모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드림스타트와 한국부모교육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상반기 11회, 하반기 6회, 가족화목캠프 2회까지 총 19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기에 참여한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알려주고,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진행해 아이들을 위한 양육법을 익히는 걸 프로그램의 목표로 정했다.

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나를 알기, 감정표현 연습, 친구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부모 자조 모임 운영을 통해 부모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는 부모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이번 한국부모교육연구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부모자조 모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군산시드림스타트
군산시 문화로 87 5층
www.dreamstart.go.kr/

“군산으로 섬 트레킹 하러 오세요”

군산시, 전북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업 팸투어 진행
해양관광 상품개발 여행사 대상 초청 홍보활동

군산시가 지난달 25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전북 해양관광 상품개발 홍보여행(팸투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여행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국내 여행사 관계자, 관광기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관광은 작년 12월에 ‘전북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김제시, 부안군 6개 기관과 체결한 후 첫 공식활동으로, 주제는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에서 서해안에서 즐기는 <해양 치유와 힐링>으로 준비해 군산과 부안에서 여행을 추진했다.

‘전북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은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기관 간 협업 연계망 구축 ▲지역특화 기획 행사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해양관광 연계 상품개발 및 운영 등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의 주도로 진행된다.

여행업 관계자들은 해상인도교로 섬을 건너는 독특한 바다 트레킹(걷기 여행)에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으며, 향후 섬여행을 테마로 한 여행상품 개발과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 관광자원을 한국관광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면서 마케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양관광 방문객 유치 확산 전략을 펼쳐 군산시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청
군산시 시청로 17
www.gunsan.go.kr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현안업무보고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18건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2회 임시회를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실시, 현안업무보고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김우민 의장은 "지난 11일간 안건 심사와 업무 보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의회
군산시 시청로 17
www.council.gunsan.go.kr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경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 241-43-01344
·**사업장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족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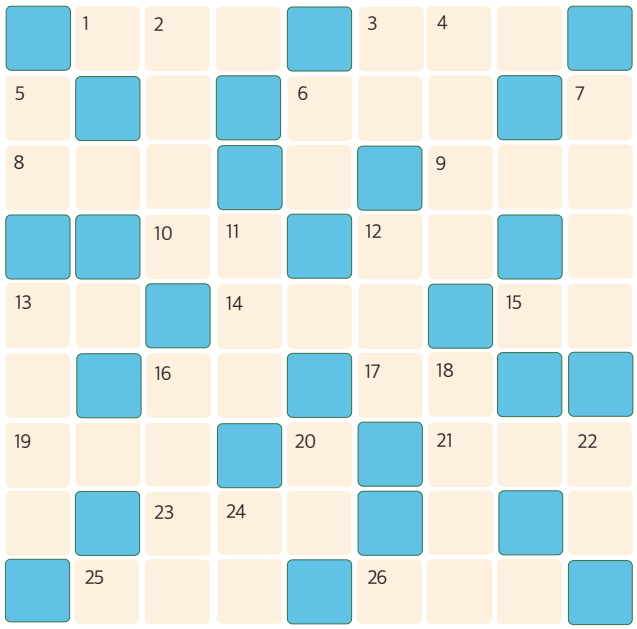
SeAH Besteel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 - 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3



내	란	죄	■	■	■	땡	땡	이
탕	■	송	풍	■	마	중	■	판
금	동	■	악	바	리	■	비	사
■	기	부	■	통	■	증	보	판
■	■	뚜	껑	■	상	류	■	■
마	지	막	■	탁	■	수	구	■
야	구	■	유	류	분	■	입	춘
부	■	월	급	■	야	호	■	궁
인	기	척	■	■	■	갱	년	기

<162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dhik0324@hanmail.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가로 열쇠

01 군산 내항의 부잔교(浮棧橋)를 이르는 순 우리말.
03 고구려의 시조. 주몽.
06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08 달력.
09 가수들의 뒤에서 춤을 추는 사람.
10 속으로는 엉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태도.
12 불고기 백반을 줄여 이르는 말.
13 선거에서 출마한 사람.
14 구경거리가 될 만한 보기 드문 광경.
15 땅속에서 뽑아낸, 정제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기름.
16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17 잠자리에서 일어남. 00나팔.
19 1919년 3월1일의 독립만세 정신을 계승,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21 호흡이 아주 잘 맞는 짝.
23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활동하는 곳.
2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조법으로 만든 술.
26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세로 열쇠

02 재주와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음.
03 같은 성. 00동본.
04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뚜렷함. 0000한 증거.
05 몰래 카메라의 줄임말.
06 화물 수출입의 절차에 따라 세관을 통과하는 일.
07 진시황이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11 환자의 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데 쓰는 의료 기구.
12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불황.
13 술자리에 늦게 온 사람에게 벌주로 권하는 석 잔의 술.
16 허리가 끊어질 듯하고 배가 아플 정도로 몹시 웃음.
18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함.
20 쌀과 그 밖의 곡식을 파는 가게.
22 물고기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한 작은 조각.
24 말(馬)의 주인.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십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dhik0324@hanmail.net